

公園의 公害防止

李鎔德(國立公園協會 總務部長)

政府에서는 公害防止를 위하여 全國의 16,000 餘 公害業所 가운데 公害防止施設이 未備한 業所에 대하여서는 環境保全法等的 規定에 따라 改修토록 稅制上特惠까지 주어가며 推進中이다. 때늦은 感은 있으나 환영할 일이나 한 걸음 나아가 施設의 改修뿐 아니라 自然에 대한 公害防止에도 積極的인 施策이 敢行되어야 한다. 空氣의 汚染 물의 汚濁, 光化學「스모그」등 우리나라도 머지 않아 公害의 洪水가 될까 매우 걱정된다. 이와 같은 環境속에서 우리들은 어찌하면 健康하고 愉快한 生活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우리 周邊에는 「天賦의 自然」이 있으나 우리 人間들은 아직 그 重要性을 忘却하고 있거나 않나 싶을 때가 있다. 國·道立公園과 森林이 울창한 近郊遊園地에는 新鮮하고 甘美로운 空氣와 물, 光, 綠陰, 芳草, 꽃, 새와 그소리 川魚의 遊戲 나비 벌 등의 昆虫 寄岩怪石의 萬象들의 調和된 神秘感은 그야말로 舌筆不盡의 地上樂園에서 살고 있다. 특히 自然公害인 國·道立園公과 近郊에 있는 遊園地는 人間의 休息과 自然探勝 및 學術研究道場으로서 快適한 場所인 關係로 利用에 앞서 保全과 制限의 必要性이 強調되어야 한다. 勿論 國·道立公園의 指定, 管理, 保全, 利用에 對하여서는 公園法에 嚴重히 規制하고 있으나 法에 앞서 自律 自制 自調하는 風土가 길려져야 한다.

利用 : 우리나라는 國民의 所得과 餘暇가 漸次 增加되어가고 있으며 交通이 便利해지고 都市生活의 混難을 避하여 自然을 希求하는 外出 自然探訪의 機會가 늘어가고 있다. 더구나 家族同伴의 傾向이 急增하여가는 現實이

다. 一部先進國은 시달리고 있다는데 우리는 미리부터 公園의 位置, 面積, 性格, 保護對象과 山岳高原, 溪谷, 海岸, 島嶼 洞窟 등 形形色色의 景觀을 探訪하는 道路, 登山路, 「하이킹코스」등을 利用에 便宜하게 하는 同時에 어느程度 制限하는 方案을 講究해야 할 것이다. 美國은 公園面積의 3%를 施設 利用地域으로 制限하고 있다 한다. 우리나라는 公害利用의 增加를 위한 開發과 管理制度政策을 併行하고 있어 國民爲主 즉 利用者를 위한 公園으로서 利用者가 增加되고 道路와 各種施設이 擴充되어가는 段階에 있으므로 制限에도 置重하는 方向으로 再考할 時點에 왔다고 生覺된다.

制限 : 公園利用의 制限은 이를 質과 量을 制限하는 두가지의 區分이 必要하다. 즉 質의 制限은 公園利用行爲의 制限을 말하는 것이며 量的 制限은 利用者의 制限이다. 自動車의 普及率이 높아가는데에 따라 利用者가 增加될 것이며 또한 宿泊施設도 加速度로 增設되므로 收容力을 위한 行爲로 自然地域의 破壞가 따르기 쉽다. 따라서 施設의 適正配置와 道路의 適正整備 등 土地利用區分이 必要할 것이다. 이 適正配置와 收容力에는 物理的 心理的, 生態學的 「바란스」를 損傷치 않을 收容人員의 檢討가 必要하며 특히 自家用車의 進入禁止措置와 交通便을 어느 距離까지를 버스便으로 代替하는 등의 強力한 推進方案이 講究되어야 할 것으로 生覺된다.

이와같이 公園의 利用과 制限을 調和있게 調整함으로써 公園의 公害를 防止하는 政策을 바라는 바이다.